

를 얻을 수 있었다.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의 치료범위 내에서 다시 재발한 경우는 2명에서, 치료범위 주변부에서의 재발한 경우는 1명에서 각각 관찰되었다. 6명의 환자들은 무병상태로 생존하고 있고(7, 14, 16, 18, 24, 30개월), 2명은 전이 병변이 있는 채로 생존하고 있다(2, 22개월). 사망한 7명의 환자들의 주된 사망원인은 원격 전이(5명), 방사선 척수염(1명), 그리고 비출혈(1명) 등이었다. Kaplan-Meyer 법으로 산출한 2년 국소 중앙 억제율과 2년 생존율은 모든 환자들에서 각각 81.3%와 38.9%였으며, 전이 병변이 없이 국소재발 병변만 있었던 10명의 환자들에서는 각각 88.9%와 63.5%였다.

결론 : 국소재발 비인강암의 방사선 재치료 방법으로서 적용한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는 다른 방사선치료의 방법들에 비하여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대체로 양호한 국소 중앙 억제율을 얻을 수 있었다.

5

진행성 비인강암의 삼차원 입체조형치료 후 초기임상결과 분석

박희철* · 김귀언 · 임지훈
조재호 · 금기창 · 서창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암센터 방사선종양학교실

배경 : 진행성 비인강암은 방사선치료 후 국소재발율이 30~60%로 높은 편이다. 조사선량을 증가시켜 높은 국소재발율을 낮추려는 여러가지 추가조사방법이 시도된 바 있으나 제한점이 많아 활발한 임상적용은 어려운 상태이다.

연구목적 : 진행성 비인강암의 치료에서 삼차원 입체조형 치료를 이용하여 조사선량을 증가시킨 치료방법이 효과적이며 또한 안전한 방법인지 알아보고자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고 초기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4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등록된 환자는 21명이었다. 등록 대상은 과거치료력이 없는 AJCC 병기 III, IV기의 진행성 비인강암 환자로 70세 미만, 전신수행도가 ECOG 2기 이하, N₂ 병기 이하의 원격전이 없는 환자로 하였다. 치료는 4 MV X-ray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70.2Gy까지 조사한 후 삼차원 입체조형치료를 이용하여 하루 1.8Gy씩 5회, 9Gy를 조사하도록 계획하였다. 치료반응의 평가는 이학적 검사, 비인강경 검사, 전산화 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하였다. 급성독성은 RTOG의 기준을, 만기부작용은 RTOG/EORTC의 만기부작용평가도구를 이용하

였다. 생존율과 국소제어율은 Kaplan-Meier법을 이용하였다. 추적관찰기간은 14~58개월로 중앙값은 34개월이었다.

결과 : 총조사선량은 75.6~82Gy(중앙값=79.2Gy)였다. 치료후 완전관해가 17명(81.0%)이었고, 부분관해는 4명(19.0%)이었다. 국소재발은 3명이었고 원격전이가 2명 발생했다. 3년 생존율과 3년 국소제어율은 각각 67.9%와 84.9%이었다. 치료로 인한 급성독성은 Grade 3의 방사선 구내염 1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Grade 1, 2로 경미하였다. 만기부작용은 1명의 측두엽 괴사와 2명의 신경감각성 난청이 발생했고 만기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는 없었다.

결론 : 삼차원 입체조형치료를 이용하여 선량을 증가시키는 치료방법은 급성독성과 만기부작용은 경미하고 3년생존율과 국소제어율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

6

The Role of Primary Radiotherapy for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Supraglottic Larynx

김원택* · 권병현 · 김동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부산대학교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성문상부 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고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사선치료 성과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을 비교 분석하여 성문상부암에서의 방사선치료의 효율성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방침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보려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5년 8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성문상부암으로 진단되어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32예를 후향적 분석을 통해 최소 29개월간 추적관찰 하였다. 6 MV 광자선을 이용하여 축소조사야 방법과 보편적 분할조사 방법으로 원발부위와 주위 경부임과절을 평균 70.2 Gy로 치료하였고, 이 중 13예는 cisplatin과 5-FU로 유도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았다. 병기별로는 1기가 5명(15.6%), 2기가 10명(31.3%), 3기가 8명(25%), 4기가 9명(28.1%)이었다.

결과 : 연구 결과 5년 전체 생존율과 국소제어율, 상대보존율은 각각 51.7%, 65.2%, 65.6%였고, 병기별로의 생존율은, 1기, 2기, 3기, 4기 각각 80%, 66.7%, 42.9%, 25.